



2026년 10월 23일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 RA 김정현

키움증권 

AI 투자 불확실성 속 연준의 경기 인식에 주목

다음 주 금융시장은 한국과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과 10월 FOMC에 주목할 전망이다. 한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둔화되겠지만, 전기 대비로는 증가세를 이어가며 반도체 수출 호조에 기반한 양호한 성장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 3%대로 예상되면서 지난 2분기(2.2%)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양호한 성장률이 시장에 주는 안도감은 제한적일 수 있다. 오히려 미국 주요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확인되는 설비투자 계획과 수익성이 향후 경기 방향에 대한 기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이들 기업의 실적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AI 투자 사이클을 둘러싼 우려가 확대되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미국 시장금리도 하락한 만큼, 10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중요해졌다. 기준금리 동결이 시장의 컨센서스인 상황에서 관건은 연준 의장의 경기와 물가에 대한 평가일 것이다. 이미 발표된 물가지표들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국제유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조기에 완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연준의 성장 전망에도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준이 이전보다 성장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다면 물가 대응에 무게를 두었던 통화정책 기조가 경기 여건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12월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되더라도 내년 긴축 강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기대로 이어지며 시장금리의 추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주 주간 매크로 이벤트 (10/26~10/30)

일자	주요 경제지표 일정 및 이벤트	컨센서스	이전치(잠정치)
10/27	韓 3분기 경제성장률 (YoY, 잠정치)	3.2%	3.7%
	韓 3분기 경제성장률 (QoQ, 잠정치)	0.8%	0.6%
	美 9월 내구재 주문 (MoM, 잠정치)	1.4%	-0.1%
	美 10월 CB 소비자기대지수	80.4	81.9
	美 9월 신규주택매매 (MoM)	-6.4%	6.4%
10/29	美 10월 FOMC 회의	3.75-4.00%	3.75-4.00%
	美 3분기 경제성장률 (QoQ)	3.0%	2.2%
	美 9월 PCE 물가지수 (MoM)	0.5%	0.3%
	美 9월 PCE 물가지수 (YoY)	3.6%	3.4%
	美 9월 PCE 근원 물가지수 (MoM)	0.3%	0.2%
	美 9월 PCE 근원 물가지수 (YoY)	3.1%	3.0%
	美 9월 개인 소득 (MoM)	0.3%	0.2%
	美 9월 개인 소비지수 (MoM)	0.5%	0.9%
	유로존 10월 ECB 통화정책회의(주요 재융자 금리)	2.65%	2.65%
10/30	日 BOJ 정책 금리	1.25%	1.25%
연준위원 발언	-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